

한국의 전통수사학사 초탐

Brief Study on the History of the Traditional Rhetoric in Korea
NA Mingu

*羅敏球 (수원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1. 서론

한국에는 수사학 전통이 있을까? 2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서양수사학과 그와 병행하여 발전하여온 중국수사학에 비하여 과연 한국은 어떠한 전통적인 내용을 내세울 수 있을까?

오늘날, 상호비교수사학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나라의 전통 수사학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본고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전통적 수사학의 역사적 흐름과 그 특징적 내용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수사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많은 학문적 연구 성과가 출판되고 있다. 수사학은 인문학을 넘어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예술과 종교의 영역에 까지 접목을 시도하는 ‘怪力’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서점에는 수사학을 일상생활에 적용한 ‘처세’, ‘대화’, ‘협상’, ‘발표’, ‘설득’ 등에 관련한 책제목들이 수 백 아니 수 천 권씩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토론’에 관한 TV 프로그램들도 각 방송사의 중요한 시간대에 안배하여 시청률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바로 수사학이 엄청나게 그 힘을 발휘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시의적절하게도 한국의 학계에서는 이러한 현대적 쟁점들이 모여져서 2002년 수사학을 연구하는 학계의 다양한 학자들이 모여 한국수사학회(현 한국수사학회)를 결성하였다. 전국의 대학에서 전공을 총망라한 즉, 영문, 불문, 중문, 독문, 일문, 사회학, 법학, 신문방송학, 교양과정 등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각 대학의 전공과정과 교양과정에서 수사학과 수사학을 응용한 과목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더욱이 한국수사학회는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국외 수사학자들과도 학문적 교류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상호 학술대회 참여, 학술지 논문 투고 등을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의 서로 다른 수사적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가장 보편적인 수사학의 원리, 즉 “어느 사회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수사학”¹⁾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원활한 상호소통을 실현하여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즉, 인류를 사랑하는 四海同胞主義의 發露이다.

현재 한국에서의 수사학에 대한 이러한 探究 열기, 즉 수사학을 배우고 현실에 응용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러한 추세는 바로 한국에 수사학의 전통이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그 초보적인 연구의 시도를 위해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전통 수사학의 큰 줄기를 고찰하기로 한다.

2. 한국수사학 전통의 특징

세계 각국의 수사학 연구는 ‘일반수사학’을 導出하기 위한 전제 작업이다. 서양과 동양 모

1) 만국만민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보편수사학을 의미하며 ‘수사학의 상수(常數)’라고 부르기도 한다.

두 평행하게 각각의 배경과 특성에 맞는 수사학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각기 다른 국가와 지역의 수사학을 개별 연구함으로써 수사학 전체 연구 영역을 광활하게 넓힐 수 있다. 각 나라의 수사학은 자생적인 전통의 요소를 함유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인접 국가들의 상호 영향을 통하여 수용하고 변형하고 또 발전하여 왔을 것이다. 한국의 수사학도 이러한 과정을 지금까지 겪어왔다.

한국은 역사문화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받아왔다. 하나는 고대역사이래로 漢字文化圈으로서 중국문화의 영향이고 또 하나는 開化期 (19세기) 이래 서양의 영향이다. 그와 더불어 한국 자체의 고유한 수사학적 전통 또한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30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역사에서 각각의 왕조역사를 기준으로 각 시대에서 그 수사적 物證들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수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에 일치점을 보인다. ‘글쓰기’ 문화는 발달하여 꽃을 피웠지만 ‘말하기’ 문화에 대한 돌출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서양의 議會演說이나 교회의 설교에 해당하는 말의 문화가 꽃피우지 못했다. 왜냐하면 수사학이 雄辯術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서양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글’과 관련이 깊었으며 佛敎와 老莊思想 그리고 儒敎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한국 전통 사회는 스피치(speech)의 順機能보다는 逆機能을 더 중시했다.²⁾ 한국에서는 심지어 때론 ‘沈默’도 소통의 수단이며 설득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한 마디로 ‘커뮤니케이션’ 개념 자체와 서양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전통 사회에서는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자기표현 보다는 공유된 경험과 분위기를 통해 말없이 은근슬쩍 속내를 내비치는 無言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선호되었는데 ‘눈으로 말해요’, ‘以心傳心’ 등과 같은 표현은 침묵의 언어가 소통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조들은 老莊思想의 영향으로 ‘雄辯’이나 ‘達辯’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간명하고 짤막하게 ‘訥言’을 이상적인 스피치(speech)로 보았다. 또한 유교의 영향을 받아 ‘교묘한 말씨’ (巧言) 보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아끼고 절제함을 중시했으며 말보다는 실천을 최대의 미덕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근대화, 산업화와 함께 전통 사회가 붕괴되면서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가치관이 점차 퇴색되었고,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가치관이 점차 서구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수사학의 발전상황을 ‘닦음 修練’의 차원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³⁾ 소통을 위한 두 가지 ‘닦음 修練’ 차원에서 소통의 도구를 만드는 과정과 기존의 소통의 도구를 개량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 ‘한글의 창제’⁴⁾와 같이 소통의 도구를 ‘만들’의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한국의 開化期 (19세기) 때 ‘國文體 사용’ 혹은 ‘國漢文體 사용’을 실험한 예이다. 또한 ‘諺解類, 고대소설, 歌詞, 時調, 書簡類’ 등의 보급을 통하여 ‘言文一致’로 나아갈 토양을 마련해온 노력도 ‘닦음 修練’의 한 현상이고 近代啓蒙期에 ‘한글을 사용한 문장 쓰기’를 주장한 ‘韓國語刷新’ 운동도 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한국인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양상에 대하여 林泰燮 (1999 : 52-66) 참조.

3) 한국의 수사학 전통에 함의되어 있는 ‘修練의 수사학’에 대하여 田聖淇 (2007) 참조. ‘닦음’은 한자로 ‘修’에 해당하며 고유 명문용어로는 ‘Dakkeumi’이라고 표기한다.

4) ‘한글’을 애초에 ‘訓民正音’이라고 이름지었던 세종(世宗) 창제 28자는 언문(諺文)·언서(諺書)·반절(反切)·암글·아햇글·가갸글·국서(國書)·국문(國文)·조선글 등의 명칭으로 불렸다. 특히 ‘言文’이라는 명칭은 세종 당대부터 쓰였는데, 한글이라는 이름이 일반화하기 전까지는 그 이름이 널리 쓰였다.

3. 三國時代⁵⁾와 高麗時代⁶⁾

‘修辭’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사적 경험과 사고가 나타나는 텍스트가 있다. 金富軾(1075-1151)의 『三國史記』에는 한국의 고대 국가인 삼국시대의 뛰어난 인물들의 말솜씨가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특히 41권부터 50권까지의 列傳에는 金庾信(595-673)부터 시작하여 乙支文德(?-?), 崔致遠(857-?), 薛聰(?-?), 弓裔(?-918), 甄萱(867-936)이르는 다양한 인물들의 말솜씨에 관한 일화를 소개한다.⁷⁾

‘修辭’ 개념을 나타내는 崔致遠⁸⁾의 ‘立言’에 대한 자료를 소개한다.⁹⁾

(1) “心學者立德, 口學者立言, 彼德也或憑言而可稱, 是言也或倚德而不朽, 可稱則心能遠示乎來者, 不朽則口亦無慙乎昔人. 爲可爲於可爲之時, 復焉敢膠讓乎篆刻?”

崔致遠, 「無染和尚碑銘奉教撰」, 『孤雲集』 券2

(心學을 한 사람은 德을 세우고[立德] 口學을 한 사람은 말을 세우니[立言], 저 德이라는 것도 혹 말[言]에 기대어야 칭송될 수 있으며, 이 말이라는 것도 덕에 의지해야 썩지 않고 오래 전해질 수 있다. 칭송될 수 있다면 마음이 능히 後來者에게 멀리 보일 것이며, 썩지 않고 오래 전해진다면 말 또한 옛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가히 할만한 일을 가히 할만한 때에 하는 것이니 다시금 어찌 글 짓는 일을 굳게 사양하겠는가?)

(2) “苟非三尺喙五色毫, 焉能措辭其間, 駕說于後?”

崔致遠, 「智證和尚碑銘」, 『孤雲集』 券3.

(말재주에 능하고 글재주가 비상하지 않으면 어찌 능히 그 사이에 文辭를 다듬어 후세에 언설을 전할 수 있겠는가?)

崔致遠은 ‘修辭’라는 용어를 직접 쓰는 대신 ‘措辭’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 뜻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崔致遠이 ‘立言’을 ‘立德’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시킨 이유는 立言의 고유하고 독립된 가치와 의의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碑銘을 짓는 것이 단순히 덕이 높은 이의 공덕을 기록하거나 남의 생각을 代筆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예술적으로 창조해냄으로써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와 생명력을 지닐 수 있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위 예문은 모두 ‘立言’의 불후한 생명력과 가치를 중시하는 생각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문사를 다듬고 새롭게 창출해내는 ‘修辭’ 활동은 체제내의 세속적 名位

5) 4세기 초에서 7세기 중엽까지 高句麗, 百濟, 新羅 세 나라가 서로 맞서 있던 시대.

6) 왕건(王建)이 신라말에 분열된 한반도를 다시 통일하여 세운 왕조(918~1392).

7) 필자는 한국 수사학의 發芽期에 해당하는 이 분야를 앞으로 심층적으로 발굴해야 할 연구대상임을 강조하고 싶다.

8) 新羅時代 학자. 879년 황소(黃巢)의 난 때 고변(高駢)의 종사관(從事官)으로서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초하여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다. <난랑비서문(鸞郎碑序文)>은 화랑도(花郎道)를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9) 한국 고대 수사학자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수사개념에 대한 예문은 鄭雨峰(2006)에서 발췌하였고 예문에 대한 설명도 참조하였다.

를 유지하고 드높이기 위한 것이거나 佛僧의 덕을 기리고 찬미하는 하나의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문인으로서의 역량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후세에 길이 전할 만한 불후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인식이 숨어 있는 것이다.

『高麗史』에는 수사학의 실증적 자료인 외교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崔致遠(857-?)의 『桂苑筆耕』, 李奎報(1168-1241)의 『東國李相國集』, 李仁老(1152-1220)의 『破閑集』, 崔滋(1188-1260)의 『補閑集』, 李齊賢(1287-1367)의 『櫟翁稗說』 등에는 ‘詩, 評, 表, 章, 書’ 등 다양한 장르의 수사학 자취를 탐구할 수 있는 글들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수사학적 탐구에 초점을 맞춘 심층적인 분석이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한국의 국문학계에서 관련 연구 작업을 해왔고 상응하는 연구실적을 거두었다고 하지만, 우리 수사학도의 입장에서는 자료와 그에 대한 분석논문을 또 다시 분석하여 수사학적 증거들을 채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시도된 梁太種(2005)의 『文化相互修辭學을 위한 崔致遠의 檄黃巢書 ‘着想’ 분석』은 매우 선구자적 연구 성과이다.

4. 朝鮮時代¹⁰⁾ (1392-1910)

朝鮮王朝는 儒學을 國敎로 정하였기 때문에 ‘道文一致’의 朱子學적 문학관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 ‘도문일치’에는 ‘文以載道’와 ‘道本文末’의 입장이 있었다.

世宗 때는 文字改革의 일종인 한글創製(1443)가 있었고 조선후기 18세기에는 燕巖 朴趾源처럼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한 학자들이 나타나 ‘新文體’ 사용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시대의 차이를 인정하고 변화된 현실에 맞는 글쓰기를 지향하였고 어휘가 典雅하느냐 通俗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휘를 얼마나 적절하게 배치하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다루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점 당시의 修辭 입장을 잘 반영하는 내용이다.

또한 당시에는 글쓰기의 기술에 해당하는 수사적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았다. ‘篇章字句’를 구성하는 원리를 ‘定法’이라 하여 그 내용이 풍부하였다. 그러나 ‘定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능력인 ‘活法’의 습득에 작문교육의 목표가 있었다. 그렇다면 西歐의 글쓰기 이론이 주로 형식적, 기법 측면에 치중되었다면, 과거 朝鮮時代의 글쓰기 이론은 획일화를 거부하고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근원적인 깨달음을 요구하였다. 즉 ‘道를 소화해서 내 목소리로 터져 나온 것이 문장’이라는 것이다. 洪吉周(1786-1841)의 ‘진문장’(眞文章)론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그렇다면 어떤 글을 일러 진문장이라 하는가? 큰 문장가가 되려 할진대 어떤 자세로 글쓰기에 임해야 할 것인가? 뜻을 걸어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뜻을 누가 보아도 타당하고, 누구에게나 설득력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뜻을 어떻게 전달되는가? 文辭를 통해 전달된다. 孔子께서도 ‘辭達而已’ 즉 글을 뜻을 전달할 뿐이라고 했다. 글이 뜻을 전달하려면 그 표현이 요령을 얻어야 한다. 표현의 요령은 어디에 있는가? 韓愈가 말한 대로 ‘陳言之務去’, 즉 진부한 말을 걸어내고 ‘詞必己出’하기에 힘쓰되,

10) 1392년 즉위한 태조(太祖) 李成桂에서 1910년 마지막 임금인 순종(純宗)에 이르기까지 27명의 왕이 승계하면서 519년간 지속되었다.

문장의 법도는 옛날에서 취해 올 일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물이 흘러감이다. 고정 불변의 定法이란 없다. 定法을 용해하여 자기화할 때 活法의 자재로움을 얻을 수 있다. ‘師其意 不師其辭’ 즉 그 정신을 본받고, 그 말은 본받지 말아라. 글이 굳이 어려울 필요는 없지만, 너무 쉬워 함부로 여기에 해서도 안된다. 자기의 뜻을 담되 표현은 요령을 얻으며, 법은 고인에게서 나왔으나 용해하여 자기화 된 글, 이런 글을 나는 眞文章이라고 한다.”

古典文章論史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장가로 손꼽히는 燕巖 朴趾源 (1737-1805)은 18세기 후반 ‘文體反正’을 일으킨 학자이다. 그의 대표작 『熱河日記』는 설득적 글쓰기의 측면에서 보아 그 사유와 표현의 관계를 주목받는다. 그의 문장론은 글쓰기를 전쟁의 수사학에 比喩한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騷壇赤幟引>에 실린 이 글은 東西古今을 통하여 단연 독보적인 文章論이라고 칭송받는 글이다.

(4) “善为文者。其知兵乎。字譬则士也。意譬则将也。题目者。敌国也。掌故者。战场墟垒也。束字为句。团句成章。犹队伍行阵也。韵以声之。词以耀之。犹金鼓旌旗也。照应者。烽埃也。譬喻者。游骑也。抑扬反复者。鏖战厮杀也。破题而结束者。先登而擒敌也。贵含蓄者。不禽二毛也。有馀音者。振旅而凯旋也。夫长平之卒。其勇恟非异於昔时也。弓矛戈鋌。其利钝非变於前日也。然而廉颇将之。则足以制胜。赵括代之。则足以自坑。故善为兵者。无可弃之卒。善为文者。无可择之字。苟得其将。则鉏耰棘矜。尽化劲悍。而裂幅揭竿。顿新精彩矣。苟得其理。则家人常谈。犹列学官而童讴里谚。亦属尔雅矣。故文之不工。非字之罪也。彼评字句之雅俗。论篇章之高下者。皆不识合变之机。而制胜之权者也。譬如不勇之将。心无定策。猝然临题。屹如坚城。眼前之笔墨。先挫於山上之草木。而胸里之记诵。已化为沙中之猿鹤矣。故为文者。其患常在乎自迷蹊径。未得要领。夫蹊径之不明。则一字难下。而常病其迟涩。要领之未得。则周匝虽密。而犹患其踈漏。譬如阴陵失道而名雅不逝。刚车重围而六骡已遁矣。苟能单辞而挈领。如雪夜之入蔡。片言而抽縈。如三鼓而夺关。则为文之道如此而至矣。友人李仲存集东人古今科體。汇为十卷。名之曰騷坛赤帜。呜呼。此皆得胜之兵而百战之余也。虽其體格不同。精粗杂进。而各有胜筹。攻无坚城。其銛锋利刃。森如武库。趋时制敌。动合兵机。继此而为文者。率此道也。定远之飞食。燕然之勒铭。其在是欤。其在是欤。虽然。房琯之车战。效迹於前人而败。虞诩之增灶。反机於古法而胜。则所以合变之权。其又在时而不在于法也。”

(글자는 比喩컨대 兵士이고, 뜻은 비유하면 將帥이다. 제목이라는 것은 적국(敵國)이고, 전장(典掌:전거를 이용하는 것) 고사(故事)는 싸움터의 진지이다. 글자를 묶어 구절이 되고, 구절을 엮어 문장을 이루는 것은 부대의 대오행진과 같다. 운으로 소리를 내고, 사(詞)로 표현을 빛나게 하는 것은 군대의 나팔이나 북, 깃발과 같다. 조용이라는 것은 봉화이고, 비유라는 것은 유격의 기병이다. 억양반복이라는 것은 끝까지 싸워 남김없이 죽이는 것이고, 제목을 깨뜨리고 나서 다시 묶어 주는 것은 성벽을 먼저 올라가 적을 사로잡는 것이다. 함축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반백의 늙은이를 사로잡지 않는 것이고, 여음이 있다는 것은 군대를 떨쳐 개선하는 것이다....그런 까닭에 병법을 잘하는 자는 버릴 만한 병졸이 없고, 글을 잘 짓는 자는 가릴 만한 글자가 없는 것이다. 글이 좋지 않은 것은 글자의 잘못이 아니다.

저 글자나 구절의 우아하고 속됨을 평하고, 편과 장의 높고 낮음을 논하는 자는 모두, 합하여 변하는 기미[合變之氣]와 제압하여 이기는 저울질[制勝之權]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합하여 변화하는 저울질이란 것은 때에 달린 것이지 법에 달린 것은 아니다.”

이렇듯 문장이론에 관한 담론이 풍성한 것은 한국수사학 전통의 풍성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修辭가 修道, 修學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문장론의 특징이기도 하다. 서양의 수사학 체계와 비교수사학 관점에서 더욱 심층연구가 필요하다.¹¹⁾

한편, 수사의 사회적 역할, 기능과 관련하여, 특히 국가간의 외교 문서 혹은 기타 공적인 문서 작성 등에 관한 자료를 소개한다. 다음은 『朝鮮王朝實錄』에 실린 내용이다.

(5)“又咨曰：本部尙書 門克新等官欽奉聖旨：“自古及今，以小事大，至敬之禮，莫貴乎修辭。是以古先聖王之制，列國諸侯九夷八蠻，有不貢不王者，則修辭修文修意。以此觀之，上之取下，下之事上，皆在乎修辭。”(太祖 5年 3月 29日)

(예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小國이 大國을 섬기는 데 있어 지극히 공경하는 禮의 가장 귀한 것은 辭令을 다듬는 것이었다. 이러므로 예전의 성왕들의 제도가 열국의 제후와 이민족에게 조공하게 하고, 임금도 사령을 다듬고 문자를 다듬고 뜻을 다듬게 한 것이다. 그러하니 이로써 보게 되면 위에서 아래를 취하는 것과 아래에서 위를 섬기는 것이 다 사령을 다듬는 데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

전근대시대에 있어 외교문서(辭令)의 작성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으며 때로는 한글자의 표현 자체가 민감한 외교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운영에 있어 매우 비중 있는 사안이었다. 이 점은 “위에서 아래를 취하는 것과 아래에서 위를 섬기는 것이 모두 사령을 다듬는 데에 달려 있다(上之取下，下之事上，皆在乎修辭)”는 발언에서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의 ‘修辭’는 외교문서(사령)의 효과적인 운용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근대동아시아에서 ‘수사’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밖에 ‘論爭’이나 ‘討論’차원에서 수사학의 전개과정을 탐구해 볼 수 있다. ‘退溪 李滉과 栗谷 李珣의 人心道心論篇’, 불교계의 ‘頓漸論爭’, ‘斥佛論爭’등에 관한 논쟁이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또한 신라시대의 만장일치 의결제도인 ‘和白制度’와 조선시대의 ‘朋黨’정치에 이르기까지 격렬히 토론을 벌였던 자료가 『朝鮮王朝實錄』에 적잖이 발견된다. 모두 수사학의 자취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5. 開化期¹²⁾

한국의 전통수사학은 이전까지 漢字文化圈에 있으면서 중국의 수사학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지만 개화기 이후 근대 수사학은 공식적인 문자체계가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면서 중국의 수사학으로 벗어나 서구의 수사학 영향을 받으면서 독자적인 수사학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개화기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¹³⁾

11) 조선시대 문장론과 비교수사학 관점에 대하여 田聖淇 (2007 : 142-149) 참조.

12) 1876년의 江華島條約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서양문물의 영향을 받아 종래의 封建의인 사회 질서를 打破하고 근대적 사회로 개혁되어 가던 시기로서 ‘近代啓蒙期’라고도 불린다.

첫째, 19세기 말까지 조선은 입으로 국어를 말하면서 글로는 한문을 쓰는 언어생활을 영위하였다. 개화기 다시 말해 近代啓蒙期 때에 와서는 이러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混用하는 불편한 언어구조를 개혁하여 ‘言文一致’를 실현하였다. 이러한 언어개혁은 문체 style 에 반영되어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으며 일상 언어에서 고어체의 말투가 구어체로 바뀌어 갔다. 이러한 시대변화는 문장론에 영향을 주어 崔在學의 『實地應用作文文法』 (1909)의 구성이나 내용에는 글의 구조적 배열과 조직원리 그리고 문장구성의 설득적이고 효과적인 유도 기술이 오늘날의 수사학에 상당히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1940년 발간된 李泰俊의 『文章講話』는 그때까지의 현대 한국어 글쓰기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지침서 역할을 하였다.

둘째, 언어 기능의 확장을 들 수 있다. 각종 공문서, 사문서의 양이 엄청나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官報, 신문, 잡지, 교과서, 단행본 등 출판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교육, 집회 등 사회 언론 활동도 활발해졌다. 그래서 개화기에는 서양의 신문물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다수의 대중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대중연설과 토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학은 그 이론적인 방법론을 제공해야 만 했다. 서구의 수사학이 이로서 유입되기 시작했다.

셋째, 新小説에는 이 시기에 서구수사학의 영향을 채집할 수 있다. 신소설에는 고대소설과는 다른 새로운 수사법이 발견되는데 서구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사법이 소개되고 있다.

동시에 주목되는 것은 수사학이라는 근대적 학적 체계에 대한 관심이다. 近代啓蒙期에 들어와 ‘修辭’는 근대 학문의 한 분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서양 용어 ‘Rhetoric’에 대한 ‘修辭’ ‘修辭學’이라는 번역어는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문에 ‘修辭學’이라는 학술 용어가 사용된 한 사례를 들어본다.

(6) 昔希臘의 敎科는 體操와 音樂을 專重하고 柏拉圖의 定 (共和國) 은 敎科는 始로 數學 幾何學 天文學 物理學 (即格致學) 으로써 加하고 阿里士多德은 一 大學校를 立호야 更히 哲學 美術로써 加하고 中世에 凡七科를 分호니 曰 拉丁文法이오 曰 倫理學 (即名學) 이오 曰 修辭學이오 曰 數學이오 曰 幾何學이오 曰 天文學이오 曰 音樂이라 호고 近世에 至호야 倍根이 出호미 自然科學이 勃然히 繁興호니 倫理 語學 作文 地理 歷史 數學 物理學 化學 動物學 植物學 習字 圖畫 體操 手工 音樂 諸科가 有호니 此는 歐州敎科變遷의 大概라.

柳瑾 譯述, 『教育學原理』, 「大韓自強會月報」 第7號, 1907.1.25.

서양 중세 학문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修辭學’이라는 학술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서양 학문을 소개하는 용어로서의 ‘수사학’이 이 시기에 이르러 자리 잡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연설회와 토론회의 광고, 행사 소개에서부터 연설문과 토론문의 게재, 연설과 토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채로운 내용을 보여준다. 演說과 討論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 시기 새로운 수사 담론은 국민 대중의 계몽을 통한 근대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에 집중되었다. 그만큼 이 시기의 수사 담론은 강렬한 시대적 계몽성에 의해 전개되었다고 하겠다. 朴容萬의 「연설을 엿더케 함」이라는 글이 1910년 『大道』에 실리어 연설을 통하여 어떻게 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지 설명하고 있다. 즉 대중 설득의 방법을 고심하였으며 특히 감동을 주기 위하여 ‘연설의 재미’라는 소설을 두어 강조하고 있다.¹⁴⁾

13) 開化期와 解放時期의 한국 근대수사학 형성과정에 대하여 朴性昌 (2006)을 참조.

또한, 安國善은 1907년 연설의 방법에 대한 최초의 저술인 『演說法方』을 집필, 간행하였는데, 그 책의 구성을 크게 <웅변가의 최초>, <웅변가 되는 法方>, <연설자의 태도>, <연설가의 박식>, <연설과 감정>, <연설의 숙습>, <연설의 종결> 등으로 구분해 놓았다. 이를 통해 수사학이 근대학문의 학적 체계 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또한 한글이 백성들의 주요 언어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독교의 유입과 성경의 번역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성경의 완역은 1938년 이루어 졌는데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들어온 현대화는 신식학교를 세웠으며 서구 수사학과 연설이 한국문화에 정착되기 시작하였다.¹⁵⁾

6. 解放期 (1945-1950)

1945년 日本으로부터의 해방은 곧 자유 연설 (speech) 과 자기표현을 향한 붓물이 터졌음을 상징한다. 한국어가 상실했던 ‘國語’의 지위를 되찾음에 따라 학교교육은 한국어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전의 문장론과는 다른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여 유통되었다. 그 중 金起林의 『文章論新講』(1950)은 주목할 만 하다. 그는 서구의 언어학과 수사학 이론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 I. A. Richards 의 영향은 명백하다. 또한 ‘해방’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남의 주장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중시하였다.¹⁶⁾

그의 주장은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7) “우리는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며, 자기의 희망과 사실을 혼동하지 않고 잘 가려 말하는 버릇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의 말을 똑바로 알아듣고 보는 재간 (talent)를 훈련해야 한다...”

그는 서구 수사학 이론을 수용했지만 ‘美辭麗句’의 裝飾적 修辭學이 아니라 ‘진달’과 ‘소통’을 중시하는 현대적 의미의 수사학 탄생을 준비하고 있었다.

7. 現代 (1990-) 新修辭學時期

해방 후 45년이 지난 1990년 이후를 한국의 신수사학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현대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수사학도 또한 급속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발전하여 왔다. 이 시기에 일어난 수사학적 발자취에 대하여 집중 정리한 연구 성과는 거두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수사학자들은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는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고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자유적이고 민주적인 시대로 접어들었다.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사이의 의사소

14) 그의 저서는 ‘연설의 주의’, ‘연설의 재료’, ‘연설의 준비’, ‘연설의 재미’, ‘연설의 방법’ 등 다섯 개의 章으로 분류된다. 개화기 한국 수사학 발자취에 대하여 鄭雨峰 (2006) 참조.

15) 기독교 영향에 대하여 WooSoo Park (2008 : 4232) 참조. “However, *Hangul* became a dominant language, especially with the introduction of Christianity and the translation of Bible into Korean by early Christian missionaries....”

16) 金起林과 I. A. Richards의 영향에 대하여 박성창 (2006 : 351) 참조.

통 수요가 급속히 증대하였으며 더욱이 ‘세계화’라는 커다란 추세가 더해졌다. ‘인터넷’과 ‘디지털’로 대표되는 다양한 정보교류, 치열한 생존의 정치와 마케팅 경쟁사회에서 수사학은 바로 시대의 요구이다.¹⁷⁾

그래서 ‘말하기’와 ‘글쓰기’에 관한 저서가 대량 출판되기 시작했으며 대학에 작문에 관련한 강좌뿐만 아니라 ‘수사학’ 강좌도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글쓰기’는 ‘논술’이라는 대학입시 주요과목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에서 수사학은 연구와 교육 측면에서 활발히 보급되고 있다.

서점에는 ‘수사학’을 제목으로 단 저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응용한 수사학 저서들이 서양과 중국처럼 쏟아져 나왔다. 우리는 이 시기를 한국의 ‘신수사학시대’ 그리고 ‘수사학의 부흥시대’라고 일컬을 수 있다.

학문적으로 볼 때, 學制間 接木을 강조하기에 수사학은 인문학을 넘어 사회과학, 자연과학과의 교류를 시도하고 있으며 기타 모든 영역 즉 언론, 광고, 예술, 종교와도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8. 결론

2000년대에 우리나라는 수사학 연구에 있어서 눈부신 비약을 거듭하고 있다. 2002년 <韓國修辭學會> 창립을 시작으로, <思考與表現學會>, <大韓醫療communication學會>등이 속속 창립하였다. <한국수사학회>가 발간하는 『수사학』은 이미 10집을 발간하고 외국 저명학자들의 논문을 기고하는 동시에 그들은 해외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화 (Global) 시대를 맞아 국제적 수사학회와 또 그 회원들과 국제 학술교류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류공영을 위한 ‘修辭學的 常數’를 발견하고자하는 노력의 반증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호 수사학을 인정하고 비교 수사학을 통하여 서로의 특징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 수사학 연구의 체계를 잡아야 한다. 상기 본론에서 고찰하였듯이, 三國時代, 高麗時代, 朝鮮時代, 開化期, 解放期, 그리고 現代에 이르면서 면면히 흐르는 전통 수사학의 물증들을 적게나마 채집할 수 있었다. 요즈음 수사학은 주변 학문과의 거침없는 접목을 실행하면서 “수사학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그 ‘통섭의 怪力’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헌적 유산은 결국 수사학의 방법론만 적용하면 무궁무진한 자료를 발굴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비단 한문학뿐만 아니라 국문학, 중문학, 아니 전 학문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저마다 우리의 전통 수사학 줄기를 나름대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시기별로 장르별로 테마별로 이제부터라도 시작한다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연구 성과와 연구 역량이 축적될 것이다. 이 점은 이미 한국의 수사학도들이 직시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다.

한국의 수사학 연구의 봄은 서양과 중국에서 21세기에 화려하게 부활한 수사학의 부흥시대 (Renaissance) 와 긴밀하게 관련이 깊다. 앞으로는 우리도 확실히 우리 것, 즉 우리나라 전통 수사학 결실을 들고 세계 교류의 장에 나가야 한다. 그래서 각국의 수사학자들과 대등하게 서로의 수사학 전통에 대한 비교 연구와 더불어 허물없는 토론을 통하여 서로 ‘招待’하는 평화와 상생의 수사학시대가 도래하길 희망한다.

17) 오늘날의 수사학에 대하여 羅敏球 (2006 : 15-17) 참조.

參考文獻

- 羅敏球 (2006), 『中國修辭學』, 漢城文化
- 朴性昌 (2006:347-354), 「西歐修辭學受容與韓國近代修辭學的展開」,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arative Rhetoric : Asia and Western World*, Korea University.
- 梁太鍾 (2005), 「문화상호수사학을 위한 격서 분석-崔致遠의 檄黃巢書‘착상’分析」, 『獨逸語文學』
- 林泰燮 (1999:52-66), 「韓國人的 Communicaton價值觀: 傳統과 變化」, 『韓國Communication學』, 第7集.
- 田聖淇 (2007:129-173), 「韓國의 修辭學傳統」, 『人文學의 修辭學적 探求』, 高麗大學校出版部.
- 鄭雨峰 (2006:109-132), 「韓國修辭學史에 있어 ‘修辭’ 談論과 그 脈絡」, 『民族文化研究』 45.
- WooSoo Park (2008:4231-4233) "Rhetoric in East Asia: Korea",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Precision Journalism - Rhetoric in Western Europe: Britain

www.rhetorica.org 한국수사학회

摘要

在韩国的传统社会中，与积极露骨的表达相比更倾向于寓言于气氛和无言的情感交流，所谓“眉目传情”，“以心交心”，从这些词语中能领会到无言的表达方式在交流中起到的重要作用。此外，韩国的祖先受老庄思想的影响，把自己的思想简单明了地表达方式视为理想的“speech”。并且受儒教的影响，一语中第地表达更被视为最大的美德。

然而，随着近代化，工业化的进展和传统社会的崩溃，传统的交流价值观渐渐被摒弃，西方化的价值观渐渐形成。

从“修炼 닷음, *Dakkeum*”的方面也能观察到修辞学的发展状况。“修炼 닷음, *Dakkeum*”也可以分为沟通的形成工具和改良基本沟通工具的过程。前者是“韩国文字 Hangeul”和类似沟通工具的创造，后者是韩国19世纪启蒙期时“国文体”的使用或“国汉文体”的实验的例子。并且通过“谚解类，古代小说，歌词，时调，书简”类等的普及培养达到“言文一致”的努力也是“修炼 닷음, *Dakkeum*”的现象之一，从近代启蒙期主张使用韩国文字的韩国语刷新运动中也可看到其过程。

關鍵詞： 修辭學, 傳統修辭, 韓國修辭, 修練